

지역조합장 선거열기

- 농수축협 자율화의 시금석이다. -

**조합원들의 새로운 있어야
한다. 조합의 생존권은 조합
원의 손에 달린만큼 중요하고
귀중한 한표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

農·水·畜協의 단위조합장선거가 間選制에서 直選制로 바뀌에 따라 지방에서는 차차 조합장 선거바람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본격적인 地自治실시를 앞둔 前哨이기도 한만큼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단순히 생각하면 경제단체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지만 조합의 民主化·自律化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풍토가 地自治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때 모범적인 선거가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1차적으로 선거로 뽑는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임기만료되는 조합장들이다. 개정된 농·수·축협법이 오는 4

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法의 부칙에 법 시행 이전에도 선거가 가능케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기가 끝나는 조합장의 후임을 선거케 된 것이다.

그동안 조합장선출은 단위조합별로 조합원들이 代의원(總代)을 뽑아 代의원들이 후보를 선출, 중앙회 회장에게 추천하면 임명하는 間選制였으나 이제는 全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直選制로 바뀌어 첫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조합원을 위해 일할 명실상부한 대표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는 선거는 농민·어민·축산인들이 열망해왔고 또 組合민주화의 試金石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썹 없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하고

불법·타락 선거가 안되도록 후보자·조합원 모두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지난날 間選制로 뽑았던 조합장이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대표한 인물이었던가, 조합이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왔으며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당해왔던가를自省해보면 조합원들의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한다. 조합의 民主化·自律化의 책임이 조합원들의 손에 달린만큼 그 礎石이 되는 선거의 과정이 더없이 중요하다.

언론사의 지방취재 보도는 지방에선 조합장 선거열풍이 점차 고조되고 일부지방에서는 과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대체로 후보가 난립, 12명이 경쟁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1월31일)

23년만에 조합장을 직선하는 것이므로 이번 선거를 「慶事」로 보아 잔치분위기쯤 일고 있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타 선거때마다 경험한 금전공세, 모함·비방등 타락선거, 불법선거가 안되도록 힘써야 한다.

직선제의 참뜻을 살려 善意的



경쟁과 공정한 선거관리로 선거를 끝내는 것이 民主主義를 꽃피우는 길이라는 自衿心을 갖고 부끄럼없는 선거를 치르기를 당부한다. 조합장 선거에 이어 얼마 안있으면 地自制가 실시돼 선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정당의 代理전쟁양상 같은 것이 이번 선거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당과 조합장 선거의 連繫를

배척하는 것이 좋을지, 나뉘지 않으면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조합장선거가 지나치게 政治色을 띠게 되면 農·水·畜協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정당후보가 경쟁을 벌일때 農·水·畜協조합장 선거가 정치선거가 될 위험이 있고 그 조직이 정치조직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농민을 위한 農·水·畜協은 정치성보다 농민을 위한 人物本位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